

반도체

Analyst **한동희** donghee.han@sks.co.kr / 3773-8826**SK증권 리서치센터**

미국 정부의 VEU 폐지 영향 Comment

- 언론 보도에 따르면,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VEU 인증을 철회. 장비 수출 사례마다 심사 필요
- Send-Fab. 등 대안전략 가시성 제한적. 미국 상무부의 의도는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
- 단기: 영향 제한적, 중기: 선단화 탄력 저하로 선단공정 ASP 방어에 우호적. 다만 중국 내 레거시 경쟁 심화

미국 정부의 VEU (Validated End-User) 인증 철회에 대한 언론 보도

언론 보도에 따르면,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VEU (Validated-End User) 인증을 철회
2022년 도입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향 수출 제한 조치에서 부여했던 예외 정책이 폐지되면서, 면제 (일괄 허용)
가 아닌 장비 수출 사례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

기존 라인에 대한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 및 부품, 서비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의 허용 의사를 밝혔지만,
증설 및 업그레이드 등 생산 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봉착
해당 정책은 120일 유예 후 적용되므로, 기한 내 단기 로드맵을 위한 필요 장비의 수급 및 장기 전략 재설정 필요

중국 내 Fab 및 생산 능력:

삼성전자 시안 Fab (NAND, 120K/월), SK하이닉스 우시 Fab (DRAM, 180K/월), Solidigm (NAND, 85K/월) 수준

Send-Fab. 등 대안 전략 가시성 제한적

중국 라인 내 장비 반입에 대한 불투명성 확대를 방어하기 위한 Send-fab. 등의 대안 전략 역시 가시성 제한
미국 상무부의 의도가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면, Send-fab.은 실질적으로 중국 라인의
기술 수준 제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

중기 관점: 선단화 탄력 저하로 선단 ASP 방어에 우호적. 다만 중국 내 레거시 경쟁 심화

SK증권은 생산 관점에서 단기 영향은 제한적, 중기 관점에서는 선단화 탄력 저하로 선단 공정에 대한 ASP 방어에
우호적일 것으로 예상. 다만 해당 정책이 장기화 된다면 중국 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라인의 진부화가 진행되며,
중국 내 레거시 노드에서의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